

“캠프 가려면 살부터 빼라”

KIA 일본 전지훈련 앞두고
서정환 감독 ‘다이어트 명령’
김진우 등 주축투수 4명 대상



“살 못빼면 스프링캠프도 오지마!”
광 전지훈련을 떠나는 KIA타이거즈 투수들에게 느닷없는 ‘다이어트’ 명령이 떨어졌다.

서정환 KIA 감독은 11일 동계훈련이 한창인 광주구장에서 일본인 야마시타 트레이너가 내놓은 ‘광 전지훈련 집중 몸관리 대상’이란 보고서를 살피던 중 돌연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야마시타의 보고서에는 올 시즌 팀 주축 투수인 김진우와 장문석, 이상화, 정원 등 투수 4명의 몸무게가 최근 2~5kg씩 불어

나 시급한 다이어트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서 감독은 곧바로 이들 4명을 불러 “광에서 살을 빼지 못하면 일본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엄포성 지시를 내렸다.

서 감독의 이같은 강경 반응은 자기 관리가 생명의 프로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했



KIA 포토데이...영건 4인방 파이팅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1일 오전 광주무등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포토데이 행사에서 윤석민, 한기주, 이용규, 전병두(왼쪽부터) 등 ‘영건 4인방’이 올 시즌 활약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는 판단때문이다.

서 감독은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은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무엇보다도 당장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게되고, 본인을 위해서도

선수생활을 오래 하려면 당연히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며 ‘살빼기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진우, 윤석민, 정원, 장문석, 이상화, 박정태, 한기주, 신용운, 이대진 등 KIA

투수진 9명은 12일부터 25일까지 광에서 기초 체력단련과 캐치볼, 웨이트 등으로 몸을 만든 뒤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성미 현실적인 목표 세워라 PGA보다 LPGA에 충실해야”

PGA 루크 도널드 쓴 소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위성미(18·나이지리아)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며 쓴 소리를 했다.

11일(한국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위성미가 나서는 PGA 투어 소니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세계랭킹 10위 도널드가 “위성미는 남자 대회에 나와 하위권에 머물기보다 LPGA 대회에서 경쟁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도널드는 “어느 선수나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편이 낫다고 본다”면서 “대회에 출전했으면 대회를 우승하는데 목표를 뒤야지 고작 컷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많은 PGA 선수들이 위성미가 이번 소니 오픈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와

무관하게 남자 대회에 출전을 계속하는 것은 그녀에게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역명을 요구한 한 PGA 투어 선수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마케팅 전략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위성미가 주위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녀가 제니퍼 캐프라이어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캐프라이어는 16세 때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자 테니스 선수로 일찍 전성기를 맞았지만 1994년에 절도 및 마약 소지 혐의로 물의를 빚은 뒤 한동안 코트를 떠나야 했던 선수다.

이 선수는 “인생에서 한 레벨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야 다음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성미는 아직 베이스 캠프에도 오지 못했는데 에베레스트 산부터 오르려는 격”이라고 못마땅한 심기를 내비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초아 “골프는 10년만 더하고 싶다”

“보통여자처럼 살고 싶어”

2006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로레나 오초아(26·멕시코)가 10년 더 선수생활을 한 뒤 ‘보통여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밀어내고 지난 해 다승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한 오초아는 11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승리의 기쁨도 만끽했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았으며 화려

했던 지난 시즌을 돌아보았다.

지난 시즌 세계랭킹 2위에 오른 오초아는 여섯 차례 우승하면서 소렌스탐의 독주체제를 무너뜨렸고 조국 멕시코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오초아는 “작년에는 골프 정상에 올랐지만 그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것도 많았다”며 “LPGA에서는 앞으로 10년 정도만 뽀 뽀 가정을 갖고 아기도 낳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사인볼 국내 판매

‘파워엔진’ 박지성(26)의 사인이 들어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공식 사인볼이 국내 판매된다.

맨유의 한국 라이선스업체 동승트레이딩은 11일 챔피언스클럽(www.championsclub.co.kr) 매장과 인터넷 씨에스몰(www.cs-malls.co.kr)에서 맨유 베스트 일레븐 한정판 사인볼과 박지성이 1월의 모델로 나온 2007년 맨유 달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박지성의 사인은 맨유 구단 로고 바로 밑



에 있고 투이 샤아, 라이언 깁스, 폴 스콜스, 에드윈 판데르사르 등의 사인도 담겨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주오픈 정상 향하여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가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15일 개막하는 올 시즌 첫 그랜드슬램대회인 호주오픈을 앞두고 연습경기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LA 코비 등번호 24번 NBA 팬들에 인기 톱

‘미스터 81’ 코비 브라이언트(LA레이커스·사진)가 올 시즌부터 새롭게 단 등번호 24번 유니폼이 미국프로농구(NBA)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NBA 사무국은 11일(한국시간) 2006~2007 시즌 개막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NBA 뉴욕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팔린 NBA 선수 유니폼을 조사한 결과 브라이언트의 24번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NBA 측은 판매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까지 8번을 달고 뛰었던 브라이언트는 이번 시즌부터 24번으로 등번호를 바꿨으며 이것이 유니폼 판매량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2~2003 시즌 이후 4년 만에 가장 인기있는 유니폼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았다.

브라이언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농구 선수 경력 후반부를 맞아 새 번호를 원한다”면서 “고등학교 때 처음 달았던 24번을 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시즌 가장 많이 팔렸던 드웨인 웨이드(마이애미)의 유니폼은 판매 순위 2위로 내려앉았고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가 3위로 뒤를 이었다.

팀별 집계에서는 LA레이커스가 5년 연속 유니폼 최다 판매 1위를 지켜 ‘인기 구단’으로서 명성을 재확인했고 마이애미 히트, 뉴욕 닉스, 시카고 불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2~5위를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미식축구 최강 가린다 14일 ‘김치볼’ 개최

국내 미식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제12회 김치볼이 14일 낮 12시 부산대학교 구장에서 열린다.

김치볼은 미국프로풋볼(NFL)의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을 본 따 지난 1995년 만들어졌다.

대학리그(타이거볼)와 사회인리그(광개토볼) 우승팀이 맞대결을 펼쳐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로 올해는 부산 동의대와 삼성중공업 그리폰즈가 올라왔다.

현재 대학리그에는 36개팀이, 사회인리그에서는 21개팀이 참가 중이다.

동대는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제47회 전국대학 미식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울산대를 20-8로 누르고 타이거볼 챔피언에 올라 대학리그가 전국리그로 통합된 1995년 이후 첫 패권을 차지했다.

삼성중공업 그리폰즈는 제12회 한국 미식축구리그(광개토볼)에서 지난해 우승팀 TPC코리아 바이킹스를 19-10으로 제치고 역시 대회 첫 우승권을 안았다.